

6·25전쟁 초기 북한군의 비정규전 교리와 그 함의

장 성 진*

- I. 서론
- II. 전쟁 초기 비정규전 교리의 실상
- III. 현 북한군의 비정규전 교리와 대응전략
- IV. 결론

국문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 문헌을 바탕으로 6·25전쟁 초기 북한군 비정규전의 실상 및 교리를 분석하는 것이다. 북한은 전쟁 초기부터 '통일'이라는 전략적 목적을 위해서 전후 점령정책과 작전적인 배합전을 구사하였고, 이와 같은 전략적, 작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술 목표를 통한 비정규전을 수행하였다. 전쟁 초기 형성된 북한의 비정규전 교리는 현재까지도 지속·유지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전략목적에 대해 다양한 전술적 목표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쟁 초기 북한군 비정규전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8월 이후 북한의 비정규전 활동

이 적게 나타난 이유는 유엔군의 효과적인 군사작전과 민사작전에 기인한다. 이를 통해 향후 비정규전 대응전략을 위해서는 민심을 얻기 위한 군관민의 통합된 군사작전과 민사작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전 교리의 개념과 이를 위한 수행 부대를 조성하고, 또한 올바른 역사관, 국가관, 안보관에 의한 국가 정체성과 법 및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북한군, 비정규전 교리, 6·25전쟁, 전략, 전술

I. 서론

김일성의 군사전략은 중국과 구소련에서의 군사적 경험과 한반도 지형적 특징, 그리고 6·25전쟁 경험을 토대로 수립된 선제기습전략, 배합전략, 속전속결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¹ 특히 배합전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으로 속전속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앞으로도 지속·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21세기 군사혁신과 하이테크 전쟁 양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경제 및 군사력 격차로 비대칭전쟁의 형태

* 육군사관학교 소령

¹ 박용환, “북한의 선군시대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선군군사전략’의 형성,” 『국방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2012), pp. 191~194.

를 추구할 것이다.² 이와 같은 북한 비대칭전의 강화 배경은 소련군의 정규작전과 마오쩌둥(毛澤東)의 비정규작전을 결합하여 미 증원군 전개 이전 속전속결하기 위한 배합전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였다.³ 또한 최근 전쟁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유형이 상호 결합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비정규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린드(Lind), 하메스(Hammes) 등이 주창하는 ‘제4세대 전쟁(Fourth Generation Warfare)’ 이론과 루퍼트 스미스(Rupert Smith)의 ‘민간전쟁(War Amongst the People)’ 패러다임 등이 대표적이다.⁴ 따라서 북한의 군사 전략과 최근 전쟁 양상을 고려해 볼 때 비정규전의 중요성은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6·25전쟁 초기 북한 비정규전의 실상을 통해 북한의 비정규전 교리를 이해함은 향후 대응 전략 수립에도 유용할 것이다.

비정규전에 대해 북한 문헌에서는 김일성의 1950년 9월 27일 연설로 비정규전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⁵ 이는 북한의 공간사,⁶ 회고록⁷ 등에서도 나타난다. 전쟁 이전과 발발이 아닌 1950년 9월 27일 이후 김일성의 명령으로 비정규전이 진행되었다고 강조함에 따라, 전쟁 초기(1950.6.25~9.26) 북한군 진격과정에서 수행한 비정규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축소·은폐하고 있다. 하지만 전쟁 초기부터 북한군의 비정규전 활동은 활발하였다. 전쟁 기간에 발행된 신문인 『조선인민보』, 『해방일보』에서는 비정규전 활동을 정규전 부대의 활동상과 함께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⁸ 또한 사후 편집과정이 비교적 적은 사료인 『조선중앙년감』 1951~1952

² 이진호, 『미래전쟁: 첨단무기와 미래의 전쟁환경』 (서울: 북코리아, 2011), pp. 55~56.

³ 권태영, “천안함 이후 우리의 역-비대칭 전략 및 정책 방향,” 『국방정책연구』, 제26권 제3호 (2010), p. 55.

⁴ William S. Lind, “Understanding Fourth Generation War,” *Military Review* (September–October, 2004), pp. 12~16; Thomas Hammes, *The Sling and the Stone: On War in the 21st Century* (Minnesota: Zenith Press, 2004), 하광희·배달형·김성걸 역, 『21세기 전쟁-비대칭의 4세대 전쟁』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루퍼트 스미스, 황보영조 역, 『전쟁의 패러다임』 (서울: 까치, 2008)

⁵ 북한군의 “인민유격투쟁”을 직접적으로 다룬 『조국해방전쟁과 인민유격투쟁』에서는 1950년 9월 27일 도당위원장협의회 연설인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와 당 단체들의 과업”을 통해 인민유격투쟁 방침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강근조, 『조국해방전쟁과 인민유격투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0), p. 4. 당시 유격대의 임무는 ① 적의 지휘부를 기습소탕, ② 보급선 차단, ③ 적의 통신수단 파괴, ④ 군수창고들과 각종 군사시설에 대한 방화, ⑤ 적 후방 혼란 등이다. 해당 연설문은 김일성, “일시적인 전략적 후퇴와 당단체들의 과업,” 『김일성저작집』, 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132~133.

⁶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전3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조선전사』, 제25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참조.

⁷ 정관호, 『전남 유격투쟁사』 (서울: 선인, 2008).

⁸ 『조선인민보』, 『해방일보』 참조.

에서도 전쟁 초기 비정규전 사례를 ‘인민군대와의 배합 협동작전’과 ‘적 후방지대에서의 기습 작전’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⁹ 즉, 당시의 문헌을 통해 북한이 정규군에 의한 정규전 수행만큼이나 비정규전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정규전 수행의 결과가 박헌영이 주장한 인민봉기로 발전하지는 못하였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김일성은 자신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박헌영을 ‘대역죄’로 몰면서 전쟁 초기 비정규전의 성과를 축소·은폐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전쟁 초기 비정규전의 실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비정규전에 대한 기존연구는 시대별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비정규전 위협을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먼저 비정규전에 대응하기 위해 공간사가 발간되었고,¹⁰ 이후 비정규전의 한 형태인 빨치산전, 혁명전, 게릴라전 등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¹¹ 또한 북한의 비정규전 위협을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의 측면에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¹² 최근에는 비정규전의 개념 규정¹³과 북한의 비정규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 방안과 대비방향이 제시되었고,¹⁴ 북한의 군사도발과 관련하여 북한의 대남전략의 실체를 다루거나¹⁵ 이를 종합·정리하는 공간사 발행¹⁶ 등 최근 전쟁양상의 특징과 북한의 도발 양상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전쟁 초기 비정규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며,¹⁷ 초기 비정규전의 실상을 반영한 대응전략도 부족한

⁹ 『조선중앙년감』, 1951~1952, pp. 410~412; 김남식, 『남로당연구』 (서울: 돌베개, 1984), pp. 444~445.

¹⁰ 육군본부, 『공비토벌사』 (육군본부, 1954); 육본정보참모부, 『공비연혁』 (1971); 정석균, 『대비정규전사(1945~196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¹¹ 김남식, “1948~50년대 남한내 빨치산 활동의 양상과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 4 (서울: 한길사, 1989); 김영택, “한국전쟁기 남한 내 적색 빨치산의 재건과 소멸(1950.10.5~1954.4.5)-전남 총사령부와 6개 지구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7집 (2003, 12); 이선아, “한국전쟁 전후 빨치산의 형성과 활동,” 『역사연구』, 제13호 (2003년 12월); 양영조, “한국전쟁기 북한 게릴라의 운용과 성격,” 『북악사론』, 제10집 (북악사학회, 2003.8); 김광운, “한국전쟁기 북한의 게릴라전 조직과 활동,” 『군사』, 제48호 (2003); 김광운, “북한의 비정규전 조직과 전개,”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 (서울: 휴머니스트, 2010); 홍은표, “북괴의 대남전략에 있어서 게바라적 요소와 그 가능성,” 『국방연구』, 제18권 제1호 (1975); 김경은, “혁명전과 게릴라전에 대한 소고,” 『군사논단』, 제32호 (2002년 가을호).

¹² 대표적인 연구로는 장명순, 『북한군사연구』 (팔복원, 1999); 이민룡, 『김정일 체제의 북한 군대 해부』 (서울: 황금알, 2004); 이춘근,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12) 등이 있다.

¹³ 이성만, “현대 비정규전 개념 범주에 관한 고찰,” 『국방연구』, 제53권 제3호 (2010.12).

¹⁴ 김종하·김재엽, “복합적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의 방향,” 『국방연구』, 제53권 2호 (2010.8); 이인영, “북한군 특수전부대의 위협/대비방향,” 『군사평론』, 제351호 (2001).

¹⁵ 이미숙,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병행 행태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남전략,”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¹⁶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건사』, 제1집 (2012).

편이다. 초기 비정규전에 대해서는 양영조가 게릴라전의 형태와 활동양상을 소개 하였지만,¹⁸ 북한의 신문과 공간사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¹⁹ 비정규전에 있어서 대중의 이해와 인식을 주도하는 언론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²⁰ 이와 같은 신문 분석으로 비정규전 교리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문헌을 통한 역사적 접근으로 초기 비정규전의 실상을 이해하고, 이후 북한의 현 비정규전과의 연관성을 통해 향후 비정규전에 대한 대응전략 방향을 모색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 문헌과 신문 자료를 바탕으로 6·25전쟁 초기 북한군 비정규전의 실상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현 비정규전 교리와 상관관계를 통해 대응 전략을 살펴보는 것이다. 비정규전 실상은 전쟁 초기를 중심으로 하여 당시 비정규전의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후 전쟁 초기 형성된 북한군 비정규전 교리가 어떻게 지속되었는지 살펴본 후, 지속된 비정규전 교리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쟁 초기 북한군 비정규전의 한계점을 적용하여 향후 북한 비정규전 교리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전쟁 초기 비정규전 교리의 실상

북한군 비정규전 교리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중국, 소련의 교리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세력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었다. 초기 북한의 국가안보 정책과 전략 및 군사교리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소련과 중국군의 군사교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²¹ 마찬가지로 김일성과 박헌영의 비정규전에 대한 사상적 기반 그리고 실질적인 항일무장투쟁의 역사 등을 고려해볼 때 북한의 비정규전 교리는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역사, 소련군의 빨치산 교리와 마오쩌둥의 유격전 교리에서 북한

¹⁷ 전쟁 이전 혹은 초기 전투 이후 빨치산 활동을 집중적으로 다루거나, 전(全) 전쟁시기에 걸친 게릴라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각주 11 참조.

¹⁸ 양영조, “한국전쟁기 북한 게릴라의 운용과 성격,” 『북악사론』, 제10집 (2003), pp. 451~467.

¹⁹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한 『빨치산 자료집』 제6권의 『조선인민보』와 서울시 인민위원회 기관지인 『해방일보』는 개전 초기 북한군 비정규전에 대한 분석 창구가 된다.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빨치산 자료집』 6권, 신문편(1)(1996). 박명림 역시 이 자료를 활용하였지만, 비정규전 운용보다는 북한의 남한통치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서울: 나남출판, 2002), pp. 197~347 참조.

²⁰ 유중근 역, 『대반란작전(Counterinsurgency Operations)』 미 합동교범 3-24 번역본(2009.10.5판) (서울: 합동참모대학 합동교리발전부, 2010), p. 158.

²¹ 조셉 S. 베뮤데즈 저·김광수 역, 『북한군-구조와 변동』 (서울: 황금알, 2007), p. 25.

에 필요한 모든 것을 수용한 복합적 성격을 지닌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실제 교육 과정에서도 나타난다.²² 또한 소련과 중국 모두 정규전 부대와 비정규전 부대와의 배합전 수행을 강조하고 있으며, 부단한 정찰과 함께 적 후방에 대한 습격 임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실제 비정규전 활동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결국 비정규전 교리는 북한식, 중국식, 소련식 전법이 혼합된 교리였다. 또한 비정규전 교리는 정규전 교리와 함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의 한 축이었다.

비정규전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전략, 작전, 전술적 목표들을 식별함이 중요하다.²³ 먼저 비정규전의 전략적 목적은 전한반도 통일 수행을 수행하기 위한 ‘조국전선’의 일환이었다. 북한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두 가지 축을 구사하였는데, 한 축은 정규전 교리에 입각한 정규군 운용이었고, 또 다른 축은 남로당 세력과 비정규전 부대의 운용이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북한에서는 ‘조국전선’으로 약칭함)에 의한 ‘통일전선’을 구축하였다.²⁴ 즉, 비정규전의 전략적 목적은 ‘조국전선’의 결성과 이를 통한 통일전략의 일환이었다. 통일전략을 위한 작전목표는 정치적으로 전후 점령 정책과 군사적으로는 작전적 배합전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술 목표는 전쟁이전에는 조국전선의 지령으로, 전시에는 김일성의 연설과 명령을 통해 부여되었다.

1. 통일된 전략목적: 조국전선의 통일전략

전쟁이전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적 통합과 재편은 1949년 6월 25일 종래의 민주주의민족전선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으로 개편됨에 따라 완성된다.²⁵ 조국전선의 결성목적은 “국토를 수호하고, 미군을 철수시켜 조선의 통일과 독립을 완수하며, 이승만 괴뢰정부를 타도한다”고 선언되었으며, 이 조국전선 성

²² 예를 들어 강동정치학원에서의 3~6개월 교육과목은 중국과 소련의 비정규전 교리를 동시에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당시 교육과목은 ‘소련 공산당 역사,’ ‘혁명운동사,’ ‘1945년 이후 조선 역사,’ ‘소련의 역사와 지리,’ ‘세계 지리,’ ‘진보적 민주 정부,’ ‘남로당의 역사와 조직,’ ‘경제학’ 등이었고, 특히 ‘소련 빨치산의 역사와 전술,’ ‘사격술,’ ‘폭파’ 그리고 ‘모택동의 항일유격전술’과 같은 군사과목을 당일에 한정해 교육하였다. 존 메릴, 이종찬 역, 『한국전쟁의 기원과 진실』 (서울: 두산 동아, 2004), p. 109.

²³ 미 합동교범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반란의 전략, 작전, 전술목표들을 식별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목표들은 바로 반란의 원동력(지도력, 목표, 이념, 작전환경, 외부지원, 내부지원, 단계화 및 속도도절, 조직 및 작전의 접근방법)중 하나임을 제시하고 있다. 유중근 역, 『대반란작전』, pp. 34~43.

²⁴ 존 메릴, 『한국전쟁의 기원과 진실』, p. 37.

²⁵ 스킨라피노·이정식, 한홍구 역, 『한국 공산주의운동사』 (서울: 돌베개, 1986), pp. 493~495.

명서에 근거하여 평화공세와 함께 남한에서의 유격투쟁을 수행하였다. 조국전선의 결성에 따른 정치적 성과는 적었지만, 이 조직의 결성으로 남한 내 비정규전 부대의 활동은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게 되었다.²⁶ 조국전선 개편 이후 7월에는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유격투쟁’을 조직적이며 보다 대규모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민유격대’를 편성하였다.²⁷ 또한 조국전선 결성 이후 남한 내 조직인 ‘인민유격대’ 편성뿐만 아니라, 북한군과 북한 노동당 내부에서도 게릴라 부대를 재편성하였다. 원산시 외곽에 북한군 장병 1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게릴라 양성 학교가 설립되어 사격술, 통신, 게릴라 전술 및 폭발물 처리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고, 노동당 훈련소(평양, 신의주, 함흥)에서도 교과 과정을 개편해 유격 전술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또한 강동정치학원을 폐교하고, 중국의 지원을 받아 1948년에 세워진 회령간부학교에서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세력이었던 오진우 교장이 훈련을 진행하였다.²⁸

조국전선은 각종 호소문과 성명서를 통한 ‘평화공세’로 전쟁의 명분을 쌓아나감과 동시에 비정규전 부대에 지령을 하달하였다. 평화공세를 위해 ‘유엔 조선위원단’을 비판하는 1949년 11월 25일 호소문, 남로당 서울지도부 김상룡, 이주하가 체포된 1950년 3월 27일 이후에 ‘남반부 애국자’에 대한 학살과 박해를 비판하는 1950년 5월 24일 성명서, 그리고 전쟁이전 6월 7일 평화적 조국통일 추진제외에 대한 호소문 등을 발표하였다.²⁹ 이외에도 조국전선에서는 1949년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38도선 일대 무장충돌 결과를 조사하여 발표하였고, 전쟁 이후에는 미군과 국군의 ‘만행’에 대해 조사하여 전쟁에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³⁰ 북한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화공세를 통해 전쟁의 명분과 정당성을 쌓아나갔다. 전략 목적을 위한 평화공세였던 것이다.

또한 조국전선은 김일성과 박헌영의 비정규전 부대의 운용 목적을 통일하는데 기여하였다. 김일성과 박헌영의 비정규전 부대 운용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달랐다. 김일성은 북한군의 선제타격작전에 의한 전면 남침시 남파유격대, 제766부대, 제

²⁶ 존 메릴, 『한국전쟁의 기원과 진실』, p. 201.

²⁷ 김남식, 『남로당연구』, p. 412.

²⁸ 존 메릴, 『한국전쟁의 진실과 기원』, pp. 220~221.

²⁹ “조국전선 중앙위원회의 호소문(1949.11.25),”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성명서(1950.5.24),”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1950.6.7),” 『조선중앙년감』, 1951~1952 참조.

³⁰ “38연선 무장충돌 조사결과에 관한 조국전선 조사위원회 보고서,” “미국 무력간섭자들과 리승만 도배들의 만행에 대한 조국전선 조사위원회 보도,” 제1, 2호 『조선중앙년감』, 1951~1952 참조.

945육전대 및 사단 내 유격대대 등의 역할에 기대를 걸었다.³¹ 반면 박헌영과 이승엽은 남한 내 각 지구당 재건과 비정규전 활동에 큰 비중을 두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국전선의 측면에서 통합된 전쟁 준비로 이어졌다. 조국전선이 결성되면서 1949년 6월에 전면적인 공세를 시작하였고, 북한이 철도 운행을 전시 체제로 바꾼 것도 조국전선이 통일 제안을 내놓은 바로 다음날이었다. 또한 조국전선 결성 이후 6월 12일 대규모 군사훈련과 2개 군단사령부 신설과도 연계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비록 비정규전 부대 운용에 대한 김일성과 박헌영의 의견은 달랐지만, 조국전선에 의한 통일전략 구사라는 같은 목적 아래 비정규전 부대가 운용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도 그 전략적 목적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2. 상이한 작전 목적: 전후 점령정책 vs. 작전적 배합전

비정규전에 대한 작전 목적은 군사적 배합전과 전후 점령정책의 일환이었다. 비정규전의 임무는 전쟁 이전부터 김일성과 박헌영뿐만 아니라 소련과 스탈린(Joseph Stalin)에게 있어서도 중요 관심사였다. 스탈린은 슈티코프(Stykov), 툰킨(Tunkin)을 통해서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던 것이다.³² 김일성과 스탈린 모두 당시 남한내 비정규전 부대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였고, 따라서 1950년 초 김일성은 전쟁에 대한 스탈린과 최종 합의 전후에 정규전 부대에 의한 한반도 전후 점령을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남로당계를 대거 남파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는 각 지역별 ‘정치공작’이라는 명목으로 각 도에 5~10명(예를 들어, 서울의 이중엽, 충남의 이주상, 여운철, 곽해봉, 박천평, 고관수, 전남의 이담래, 조형표, 김태규, 전북의 박승원 등)을 사전 침투하여 점령정책을 수행한 것이었고,³³ 또 다른 하나는 전쟁이전 후방교란과 잔존 비정규전 병력을 지원하기 위해 오대산과 태백산 지구에 10차례 유격대를 침투한 것이다.³⁴ 즉, 전쟁 이전부터 통일전략을 위해 전후 점령정책과 정규전 부대와 배합전을 구사할 작전적 목적으로 비정규전 부대가 파견되었던 것이다.

북한군은 6·25전쟁 이전부터 비정규전을 통해 제2전선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³¹ 양영조, “6·25전쟁 남침전후 북한 게릴라의 성격,”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전쟁기 전쟁수행과 그 영향』 (2010.6.19), p. 19.

³²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1권 (서울: 나남, 1996), p. 265.

³³ 김남식, 『남로당연구』, pp. 440~441.

³⁴ 10 차례에 걸친 유격부대의 활동과 그에 대한 대응은 정석균, 『대비정규전사(1945~196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참조.

박헌영은 1946년 이래 1948년 8월말까지도 남로당 중심의 인민봉기론을 우선하였으며 이는 박헌영이 레닌의 ‘무장봉기론’에 보다 충실하였음을 의미한다.³⁵ 실제로 비정규전 부대의 활동은 국군으로 하여금 4개 사단 규모와 경찰병력을 투입하게 함에 따라 전선의 방어를 약화시켰다.³⁶ 1949년 9월 12~13일 소련대사 툰킨과 김일성, 박헌영의 면담에서 박헌영은 남한 내 빨치산이 북한군 공격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며, 적의 통신 및 연락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의 공격을 도울 것임을 강조하였다.³⁷ 즉, 박헌영은 전후 점령정책에 더욱 큰 비중을 두었던 것이다.

비정규전 부대의 활동은 인민위원회 복구와 상관관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박헌영은 1948년 2월 6일 총파업을 위한 5개항 지령 중 하나로 ‘인민위원회 복구’를 내세웠다.³⁸ 박헌영은 인민위원회를 복구하는 수단으로 남로당 세력에 의한 ‘치고 빠지는’ 비정규전 전략을 초기부터 구사하였다. 비정규전의 작전적 목적인 점령정책을 위해 북한은 인민위원회 복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인민위원회 복구의 장애물은 경찰이었기 때문에 전쟁이전부터 경찰을 주 타격 대상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경찰이 6·25전쟁 이전 공비소탕과 매복간첩의 색출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³⁹ 예를 들어, 1946년 말 일련의 폭동으로 4백여 명의 경찰관이 무참히 살해되었다.⁴⁰ 이와 같은 경찰 타격의 진정한 목적은 인민위원회를 복구하기 위함이었다. 경찰을 공격하여 치안세력을 제거하고 비정규전 부대 혹은 북한군 부대를 통해 치안을 확보함과 동시에 점령정책을 쉽게 구사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한 명분으로 ‘경찰 타격은 일제 잔재 청산’이라고 선전하였기 때문에 그 효과 또한 컸다. 이는 1950년 7월 8일 대전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때, 비교적 치안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전남북 지역은 계엄에서 제외되면서 공산화가 쉽게 이루어짐을 통해 알 수 있다.⁴¹ 결국 비정규전 부대의 또 다른 임무는 전후 점령정책을 일환이었고 이를 위해 경찰을 주로 타격하였던 것이다.

³⁵ 정창현, 『인물로 본 북한현대사』 (서울: 민영, 2002), pp. 125~126.

³⁶ 양영조,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 1945-1950』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7), p. 166.

³⁷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권, p. 122.

³⁸ 당시 지령은 ① 경찰과 미군정에 대한 투쟁, ② ‘치고 빠지는’ 전략 구사, ③ 인민항쟁 시작, ④ 이승만, 김구, 김규식에 대한 투쟁 전개, ⑤ 군읍면 당위 인민위원회 조직이었다. FEC, *Intelligence Summary*, Februray 6, 1948.

³⁹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서울: 을지문화사, 1972), p. 69. 경찰은 국군보다 먼저 칼빈소총으로 무장하여 38선 경비임무를 수행하였고, 해방 이후 계속된 이념 간의 갈등 등 사회적 혼란기에 폭동 및 반란을 진압하는 치안 확보 임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전용선, “경비경찰 역사 및 활동에 대한 소고,” pp. 25~26.

⁴⁰ 존 메릴, 『한국전쟁의 진실과 기원』, p. 54.

⁴¹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pp. 318~319.

또한 비정규전 부대의 활동은 6·25전쟁기 북한의 ‘후방정책’과도 연계된다. 북한은 1949년 7월 15일 조국보위후원회 결성준비위원회가 조직되면서 급속하게 전시 동원체제를 수립하였다.⁴² 이 전시 동원체제는 동원을 위한 이념, 조직, 규정 등에 있어 군대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었다.⁴³ 따라서 비정규전의 작전목적은 남한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의 전시동원을 위한 이념, 조직, 규정을 선도하여 군과 연계시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전후 점령정책의 일환이었던 박헌영의 무장봉기론은 1949년 봄부터 북한의 정규전과 빨치산 작전을 배합한다는 김일성의 전쟁 통일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⁴⁴ 결국, 레닌의 무장봉기론을 주장하였던 박헌영은 『야전규정』에 나타난 빨치산 부대의 제2전선을 통한 통일전략으로 전략을 선회하였고, 이에 따라 비정규전 부대 활동이 전쟁 초기부터 정규전 부대와 배합전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김일성은 각종 연설문에서 나타나듯 정규전 부대와와의 배합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배합전의 강조가 중국군과의 전투경험 이후에 나타난 현상인지 혹은 본래의 의도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실제 전쟁 초기 사례에서 비정규전 부대의 임무는 배합전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유격대 중대장이었던 김남식의 증언에 의하면, “노동당 직속하의 유격대원 200명은 북한 정규군이 한강을 넘기전에 대전으로 잠입해서 소위 민중봉기를 꾀하기로 기동력이 없는데다가 행군 코오스를 잘못잡아 정규군 부대와 거의 같은 시각에 대전에 들어갔다.”⁴⁵ 즉, 정규전을 돕기 위해 민중봉기를 추구하거나, 첩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용되었다. 오기완의 증언에 의하면, “대전 지구의 지하남로당으로부터 한 건의 첩보도 없단 말이에요. 이래서 30명의 첩보원을 피난민에 섞어서 내보냈다”⁴⁶고 한 것처럼 비정규전 부대를 활용하여 첩보를 수집하고자 하였으나 대전 전투의 경우 제대로 된 정보 활용을 이룰 수 없었다. 정규전 부대가 승전하는 경우 비정규전 활동 역시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으며, 특히 호남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정규전 부대에 의한 배합전은 오히려 북한 정규전 부대 작전에 혼란

⁴² 『로동신문』, 1949년 7월 17일; 박영자, “6·25전쟁기 북한의 ‘후방정책’-후방 전시동원에 대한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군사』, 제57호 (2005), p. 240에서 재인용.

⁴³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2권 (서울: 나남, 1996), p. 789.

⁴⁴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p. 42.

⁴⁵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p. 318.

⁴⁶ 위의 책, p. 335.

을 초래하였다. 다음 제1군집단 지휘부의 명령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⁴⁷

관하 각 연합 부대들의 공격 전면에서 활동하는 인민유격대들이 아군과의 연계도 없이 개별적으로 행동하여 작전상 큰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일이 많다. …또한 부대 후방에서 군대에 입대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떠도는 무수한 의용군과 부분적 인민유격대들이 많다. 각 연합 부대에서는 이러한 인원들을 속히 모집 장악하여 사단의 보충 대대를 편성할 것이다.

위의 1950년 8월 4일 제1군집단 지휘부의 명령에서 보이듯이, 정규전 부대와 비정규전 부대와의 연계된 작전이 제한되었고, 따라서 비정규전 부대는 사단 보충 대대로 편성되었던 것이다. 즉, 김일성은 박헌영과 달리 정규전 부대에 의한 전쟁 승리를 추구하였지만, 비정규전 부대에 의한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비정규전 부대를 정규전의 일환으로 재편한 것이다. 즉, 8월 이후 북한군 비정규전 부대의 임무는 정규전과의 배합에서 정규전 부대의 일환으로 그 임무가 변화되었다.

3. 조국전선의 지령, 김일성의 연설에 의한 다양한 전술 목표

비정규전 부대에 대한 임무 수행은 조국전선의 지령을 통해 내려졌다. 1949년 11월 25일 호소문에서는 ‘남조선 애국자’들로 하여금 “빨치산을 존경과 사랑으로 옹호”하도록 하였고,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임은이 증언한바와 같이, 조국전선의 호소문은 단순하게 정치적 효과만을 노린 선전 공세는 아니었다.⁴⁸ 1949년도 말부터 1950년 초 방송, 신문, 잡지, 정부 간행물을 비롯한 북한 언론매체들은 이승엽, 김삼룡 등 박헌영 일파에 의한 남한의 투쟁을 선동하고 격려하는 자극적 선동문들이 일제히 실렸다.⁴⁹ 이와 같은 일련의 편지와 격려문이 실제 행동을 위한 지시문이었고, 북한 내부 문건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기석은 “1949년 12월 27일 남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중간생략) 편지가 나오고, 1950년 1월 9일에는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에서 (중간생략) 호소문이 나왔다. 이 편지와 호소문은 (중간생략) 피끓는 유격대에 대해서는 전투의 지시문이며 격려문이다. 이

⁴⁷ 신 노획문서, 201103 제2사단 참모부철, 8월 4일자 명령 참조. 방선주, “한국전쟁 당시 북한 자료로 본 ‘노근리’ 사건,” 『정신문화연구』, 제23권 제2호 (2000), p. 44에서 재인용.

⁴⁸ 임은, “6·25 동란의 방화자는 김일성이다,” 김철범 편, 『진실과 증언』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133. 임은은 6월 7일 ‘민주 전선’의 호소문이 적(미국, 남한)의 정상적인 판단을 혼란시키기 위한 술책이며, 전쟁 준비를 숨기기 위한 전술적 책략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⁴⁹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1권, pp. 264~265.

때로부터 전투는 지역적 소탕전이 버려(벌어)졌다.”⁵⁰고 하여 조국전선의 지시문이 유격대에 전달되었음을 강조하였다. 1950년 6월에 발행된 기관지 『인민』에서도 좀 더 명확한 “투쟁과업”이 제시되고 있다.⁵¹ “인민유격대들을 백방으로 원조할 뿐만 아니라 그 대렬(대열)에 용감히 참가하여 빨찌산 대렬을 공고 확대”시키고, “빨찌산들은 토지를 요구하여(중간생략) 전투범위를 확대하며, 도처에서 원수들을 소탕하고, 해방구를 창설하며, 인민정권인 인민위원회를 복구”하고, “남반부 농민들은(중간생략) 토지개혁을 자기의 손으로 단행”하고, 또한 “소위 『국방군』 내의 량심있는 장교 병사들은(중간생략) 빨찌산 대렬에 용감히 넘어”가도록 하였다. 즉 전쟁을 앞둔 6월 19일에 조국전선 의장단인 허현이 정부기관지를 통해 남한내 비정규전 병력에게 투쟁과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1949년부터 1950년에 이르는 조국전선의 지시문과 호소문은 비정규전 부대에 대한 일련의 지령이었다. 비정규전 부대는 광범위한 연락망을 통해 북한과 연락을 유지했고, 평양 라디오 방송 내용을 벽보 또는 빠라를 만들어 활용하기도 하였다.⁵² 그렇다면 김일성과 박헌영 모두 비정규전 병력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조국전선의 지령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이는 단순한 군사적 측면만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은 여수 탈환 작전시 단기간에 여수를 탈환하지 않으면 정부가 붕괴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⁵³ 당시 한국 정부는 매우 취약한 신생 정부였기 때문에 소규모의 활동일지라도 전면적인 정규전 부대의 침공과 동시에 진행된다면 정치적으로 붕괴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조국전선 혹은 박헌영, 이승엽 등에 의한 남로당 중앙당의 명령이 모든 비정규

⁵⁰ 리기석, “남반부 인민유격대의 영웅한 구국투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기관지, 『인민』, 제5권 제7호 (평양: 민주조선사, 1950년 7월호), NARA RG242 SA2009 Box 9, Item 25.1, p. 56.

⁵¹ 허현,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의 기치밑에 통일위업달성에 더욱 힘차게 전진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기관지, 『인민』 (평양: 민주조선사, 1950년 6월호), NARA, RG242 SA2009 Box9, item 25.2, pp. 21~22.

⁵² 존 메릴, 『한국전쟁의 기원과 진실』, p. 205. 평양방송에서는 “가는 곳마다 적들을 무찌르며, 혁명 용사들은 한 손에는 총을 다른 한 손에는 선전 빠라를 든 채 마을로 들어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강령을 선전하는 한편, 수십 명에서 때로는 수백 명에 이르는 대중 집회를 열었다”고 당시 조국전선의 강령을 비정규전부대가 수령하고 있음을 선전하고 있다. 『평양 라디오방송』 1949년 8월 29일; 존 메릴, 『한국전쟁의 기원과 진실』, p. 207에서 재인용.

⁵³ “당시 전술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군사적 측면이 아니었다. 한국 정부는 매우 취약한 신생 정부였다. 만약 반란이 단기간에 진압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정치적으로 붕괴할 가능성이 있었다.” 위의 책, p. 141.

전 부대의 활동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제주도 4·3사건의 경우 남로당에서는 선거 반대 투쟁을 보다 신중히 하도록 권고하였지만, 김달삼과 조노구, 그리고 문상길 등에 의한 남로당 제주 회의에서 무장 폭동을 결심하고 이를 실행하였다.⁵⁴ 마찬가지로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사건 역시 제주도 사건의 경우처럼 당시 남로당은 대규모 반란을 도모하지 않았으며, 당시 여수 지역의 상황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었다.⁵⁵ 따라서 모든 사건들이 조국전선의 지령에 의하여 수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쟁 이전부터 일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정규전 부대가 운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국전선의 지령은 각 전술제대가 수행해야 할 전술 목표였던 것이다.

전쟁 이전 조국전선의 지령은 전쟁 발발 이후 김일성의 연설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전쟁 초기 비정규전의 임무는 김일성의 각종 연설문을 통해 나타난다. 1951년도 발행된 『자유와 독립을 위한 위대한 해방전쟁』과 1953년도 발행된 『김일성 선집』에 나타난 김일성 연설문에서는 <표 1>과 같이 각 시기마다 빨치산 부대의 임무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종 신문과 문헌을 통해 전파되었다. 또한 이 연설문의 내용은 향후 북한군 후퇴 시기에 활동한 유격대의 사상교양사업 교양교재가 되었다.⁵⁶ 또한 1950년 박헌영의 연설⁵⁷에서도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배합과 전후 점령정책을 위한 일환으로 비정규전 부대의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

⁵⁴ 위의 책, p. 70.

⁵⁵ 위의 책, p. 124.

⁵⁶ 구체적 훈련은 기본 전투기술(사격훈련, 수류탄던지기, 포복전진, 신호연락, 정찰법, 불의습격, 산악전, 야간전 등)을 습득하게 하고, 지휘간부와 유격대핵심을 키우기 위해 군정학교, 단기양성소, 단기강습소 등을 운영하고 청소년근위대를 조직하였다고 한다. 강석희,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pp. 112~116.

⁵⁷ 1950년 6월 말경 “남반부의 로동당 전체당원들과 전체인민들에게 호소한 박헌영 선생의 (해방) 연설”은 비정규전 부대에 대한 임무를 제시하였다. 먼저 ① “대중적 정치적 폭동”으로 “인민군에 호응 꺾기”하고, ② “해방된 곳”에서는 “인민위원회”를 복구하며, ③ “용감한 빨치산”들은 “후방에 남아 있는 적들을 소탕하며 후방과 전선을 차단”하며, ④ “기습전”으로 “적의 참보부와 지휘부”와 “철도 운수 기관, 도로 교량 터널등과 전신 전화 등”을 파괴하고, “병력 이동과 군수물자 수송”을 방해하고, “량곡 창고, 피복 창고”를 습격하고, “반역자들을 체포 차단”하며, ⑤ “공격 전진하는 인민군대에 백방의 원조”를 하도록 하였다. “남반부의 로동당 전체당원들과 전체인민들에게 호소한 박헌영 동지의 방송연설,” 『6·25전쟁 북한군 전투명령』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 132.

<표 1> 문헌에 나타난 김일성이 지시한 빨치산 부대 임무

시기	임무
6.26 방송 연설	① 적의 후방에서 적들을 공격소탕 ② 적의 작전계획 파탄 ③ 적의 참모부 습격 ④ 철도, 도로, 교량 등과 전신, 전화선 등 절단파괴, 적의 전선과 후방연락 차단 ⑤ 반역자 처단하여 인민위원회 복귀 ⑥ 인민군대 작전 적극 협조
6.28 연설	① 적의 후방 교란시키며 ② 유격전을 일층 맹렬히 전개하며 ③ 도처에서 인민 폭동을 일으키며 ④ 미 무기와 군수품을 우리 국토에 들어놓지 못하게 하기 ⑤ 인민군대를 적극 협조
7.8 방송 연설	① 빨치산 투쟁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 ② 더욱 대담하고 용감하게, 더욱 무자비하게 원수 공격 ③ 도로, 철도의 교량, 통신망 파괴 ④ 병력 이동과 무기, 군수물자와 수송 파탄 ⑤ 무기고, 군수창고 습격파괴, 유생력량 소탕
8.15 연설	① 인민군대에 호응하여 자기의 활동을 맹렬히 전개 ② 적의 후방 수송로 차단 ③ 적 후방 기습 ④ 미 룡상(육상)부대 상륙 저해하기 위하여 항만 시설 파괴 ⑤ 군수품 창고 소각 ⑥ 적 참모부 기습
8.15 명령 82호	① 미 후방에서 유격전 강화 ② 적의 통신수단 파괴 ③ 적의 참모부와 전투기재 분쇄 ④ 강점자(강제점령자, 미국)들에게 치명적 타격
9.11 연설	① 적의 공습에서 자기 생명, 화력기재 엄호 ② 적 후방방어 중심에 깊이 침투하여 적을 포위섬멸
10.11 연설	① 적 사령부 격멸 ② 보급선 파괴 ③ 도로, 교량, 전선, 전화, 연락수단 파괴 ④ 적의 창고와 화물 방화

출처: 『김일성선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3.5); 『자유와 독립을 위한 위대한 해방전쟁』 (1951년).

그렇다면 전쟁 초기 북한군의 비정규전 교리는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북한군은 전쟁 초기부터 ‘일점양면 전술’을 구사하여 전술적 승리를 통해 낙동강 일대까지 진격할 수 있었다.⁵⁸ 당시 북한의 ‘일점양면 전술’은 정규전 부대의 보·전·포 협동작전과 비정규전 부대의 배합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국군의 피난민 통제

정책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적인 대처에 불과해 북한의 전투성과가 좀 더 쉽게 달성될 수 있었다.⁵⁹ 당시 피난민 이동과 피난민을 가장한 적의 오열, 즉 비정규전 부대는 아군 작전에 끼친 영향은 지대했다.⁶⁰ 북한군은 피난민 대열 속에 편의대, 유격대, 첩자들을 침투시켜 후방지역을 교란시켰다. 낙동강 방어선 형성의 원인은 북한군 제6사단의 호남지역 대우회 기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북한군 전술의 특징인 ‘일점양면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적 성과라고도 볼 수 있다.⁶¹ 결국, 북한의 비정규전 교리는 전쟁 초기 전술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Ⅲ. 현 북한군의 비정규전 교리와 대응전략

지금까지 북한의 전쟁 초기 북한군의 비정규전의 실상에 대해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왜 전쟁 초기 북한의 비정규전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왜 비정규전이 성공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전쟁 초기 북한군의 비정규전 교리가 전쟁 이후에도 현재까지 지속되었는지 전후 역사적 사건의 맥락을 통해 살펴보겠다. 전쟁 초기 비정규전의 한계와 현 교리의 특징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6·25전쟁 당시 북한군의 비정규전이 현재 북한의 군사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 하겠다.

⁵⁸ 전술적으로는 성공하였지만, 전략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군 제1, 2군단의 협조된 작전의 미흡으로 서울 북방에서 국군의 주력을 섬멸할 수 없었고, 제6사단도 지휘연락 불량, 보급 협동작전 능력과 병참부대의 부족으로 우회포위를 달성할 수 없었다. 일점양면전술에 대해서는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 『한국전쟁사』 수정판 (서울: 일신사, 1996), pp. 227~288 참조.

⁵⁹ 문성수 외, 『기록으로 본 6·25전쟁과 민군작전』 (대전: 육군본부 육군군사연구소, 2012), p. 28. 제6, 8사단의 경우 피난민 대책 계획을 수립하였고, 당시 지휘관의 리더십과 훈련, 전투의지 등이 초기 전투에서 선전한 배경이 되었다. 당시 피난민 대책 수립에 대해 제6사단은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53권(1987), p. 100. 제8사단은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1977), p. 200 참조.

⁶⁰ 문성수 외, 『기록으로 본 6·25전쟁과 민군작전』, p. 46; 양영조, 『한국전쟁과 동북아 국가정책』 (서울: 선인, 2007), p. 197.

⁶¹ 최용성, “한국전쟁시 낙동강 방어 형성의 배경,” 『신라문화』, 제24호 (2004) 참조.

1. 6·25전쟁 초기 비정규전 수행의 한계

북한 역사에서는 개전 초기 비정규전 활동이 은폐, 축소되었다. 하지만 7월 북한의 비정규전 부대 활동은 비록 인민봉기까지 연결되지는 못하였지만, 국군과 유엔군 작전에 큰 차질을 주었다. 또한 이후 북한군 점령정책의 일환이었던 인민위원회 복구에도 일정부분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8월 이후 북한군 비정규전 부대의 활동은 축소되었다. 활동지역은 지리산, 동해안, 소백산, 서해안 등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전 지역에 걸쳐 일어났으며, 경상도의 경우에는 대구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고, 전라도는 지리산에 근거지를 두고 이현상 부대가 활동하였으며, 강원도 지역에서는 배철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왜 8월 이후 비정규전 부대의 활동이 적게 나타나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정규전 부대가 진격함에 따라 비정규전 부대는 정규전부대와 배합전을 수행하기 위해 정규전 부대진출 방향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거나, 경찰에 대한 테러가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찰력에 의한 안정화 작업이 진행되었거나, 비정규전 부대의 구성원들이 유엔군 사령부의 피난민 보호 및 민간인 소개로 전선지역과 후방지역이 분리되었기 때문 등의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혹은 낙동강 방어선 형성에 따른 우회의 공간이 차단됨에 따라 정규전 부대와 비정규전 부대 간 연락이 단절되었기 때문이거나, 심리적으로 당시 미군이 개입하자 남한 지역내 안정이 회복되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며, 또는 정규작전 부대와 비정규작전 부대와의 연계된 작전 제한에 따른 비정규전 부대가 사단 보충대대로 재편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요컨대 비정규전 부대가 군사적 배합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전후점령을 위한 임무 수행이 제한되었기에 8월 이후 비정규전 부대의 활동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북한군 비정규전의 임무 수행이 제한된 이유는 유엔군의 효과적인 대응에 기인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비정규전 부대는 유엔군에게 비정규전 부대와 민간인과의 구분문제로 인해 작전상 혼란을 야기 시켰다. 예를 들어 천안전투에서는 피난민 속에 다수의 게릴라가 포함되어 미군이 설치한 지뢰를 제거하였다.⁶² 대전전투에서는 피난민속에 정보 수집을 위한 정찰부대가 잠입하였으며,⁶³ 북한

⁶²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p. 326.

⁶³ 오기완의 증언에 의하면, “대전 지구의 지하남로당으로부터 한 건의 첩보도 없단 말이에요. 이래서 30명의 첩보원을 피난민에 섞어서 내보냈지만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아요. 기다리다 못해 50명을 다시 보냈는데 안 돌아와요. 또 30명을 보냈지만 영 함흥차사예요.” 위의 책, p. 335.

군 8월 공세시 영산전투에서는 북한군 12명이 피난민으로 가장하여 남지교 일대로 잠입하려 하였고,⁶⁴ 북한군 9월 공세시 약 2,000명은 피난민처럼 횡불을 들고 행진하였으나, 사실은 북한군 제2사단 정규 병력이었다.⁶⁵ 이와 같이 민간 요소와 비정규전 부대 활동은 유엔군의 작전 활동을 제한시켰다. 전쟁 초기 정부는 체계적인 피난민 철수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에 전력하고 있었고,⁶⁶ 이 틈을 활용하여 피난민속에서 북한군 비정규전 부대가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런데 비정규전 부대가 전선 부대와 연결을 위해 대구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전 부대의 활동이 대구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대구에서 진행된 일련의 정부정책과 연관성이 있다. 제8군 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는 신성모 총리에게 피난민 통제와 협조에 대한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을 했으며, 1950년 7월 25일경 한·미간 지원 협조가 이루어졌다.⁶⁷ 여기에 경찰 지원사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 군 작전을 위해 한국경찰이 파견됨에 따라 비록 피난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였지만, 북한군 비정규전 부대의 활동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⁶⁸ 특히 대구에는 치안국의 비상경비총사령부 휘하에 전국에서 모여든 경찰관으로 전투대가 편성되어 대구 주변의 적 오염 검색과 후방 치안을 맡게 되면서⁶⁹ 대구로 몰려드는 북한의 비정규전 활동을 위축시켰던 것이다. 즉, 7월에 발생한 각종 비정규전 활동에 대한 피난민 철수 대책에 따른 규제적 접근과 그에 따른 경찰관 전투대 편성과 각 사단별 경찰 지원은 북한의 비정규전 수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피난민 법령이 그 실효성을 발휘하기 전에는 비정규전 부대의 활동이 민간인 학살 사건과 연계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북한은 인천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되었다고 보도하였지만, 미 정보자료에 의하면 이는 인천 게릴라 활동이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피아 오인과 민간인 부대에 의한 피해 급증 등으로 나타나게 되었

⁶⁴ 일본 육전사연구보급회 편, 이원복 역, 『한국전쟁』, 제2권 부산 교두보 확보 (서울: 명성출판, 1991), pp. 165~166.

⁶⁵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1961); 육군본부 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육군본부, 2001), p. 334.

⁶⁶ 양영조, “한국전쟁기 대구지역 피난민의 실태와 구호활동,”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분과 편,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 (서울: 휴머니스트, 2010), p. 573.

⁶⁷ 위의 글, p. 574.

⁶⁸ 위의 글, p. 575.

⁶⁹ 위의 글, p. 575.

다. 미 제8군 정보참모부(G-2) 정보보고서에서는 전시 피난민속에서의 군사 활동 관련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1950년 7월 말경 서부전선 지역에 북한군이 농부나 피난민 복장으로 위장하고 침투하였으며, 위장된 달구지로 탄약을 운반하거나, 북한군 선두부대가 피난민 대열을 후속하여 공격하기도 하였다.⁷⁰ 피난민과 비정규전 부대에 대한 식별의 곤란함은 이후 비정규전 부대 활동으로 인해 민간인이 학살되는 비극적인 사건과 연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민과 군을 분리시키는 일련의 한·미의 연합정책이 비정규전 부대의 활동을 더욱 어렵게 하였던 것이다.

2. 전후 지속된 북한군의 비정규전 교리

6·25전쟁 초기 전투를 통해 형성된 북한군의 정규전 교리와 비정규전 교리는 이후 북한군 전략 및 전술의 근간이 된다. 1950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평안북도(자강도) 별오리에서 노동당 제2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6·25전쟁 초기 6개월간의 패인을 분석하였다.⁷¹ 당시 6·25전쟁 패전 요인 분석 결과는 1952년말 고급군관회의시 5개의 당면임무, 그리고 1962년 12월 노동당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4대 군사노선’으로 이어졌다. 북한의 4대 군사노선은 과거의 전훈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비정규전의 체험을 기초로 정치전, 게릴라전, 땅굴전의 요령을 배우고, 제3, 4차 아랍-이스라엘 전쟁의 속전속결의 기갑전과 걸프전 등의 교훈이 반영되었다.⁷² 결국 전쟁 초기 비정규전 교리는 북한의 현 군사전략인 선제기습전략, 배합전략, 속전속결전략 중에서도 배합전략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정규전의 전략적 목적인 조국전선의 통일전략 역시 변하지 않았다. 김정일 사망 후 개최된 제4차 당대표자 회의(2012.4.11)의 노동당 규약 전문에서도 여전히 대남전략 목표는 적화통일전략이다.⁷³ 북한은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점령, 통일한다는 전략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⁷⁴ 즉, 북한은 건국 이래 끊임없이 일관되게

⁷⁰ 양영조, “6·25전쟁기 제8군 정보참모부(G-2) 정보보고서 자료 해제,” 『한국학논총』, 제34호(2010), p. 1266.

⁷¹ 김일성, “현 정세와 당면과업,” 『김일성 저작집』, 제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참조.

⁷² 葛原和三, 육군대학 역, “북괴군은 한국전쟁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군사평론』, 제339호(1998), pp. 99~103.

⁷³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 『노동신문』, 2012년 4월 12일.

한국을 적화통일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에 노력하고 있다. 이 적화통일의 기본방침이 3대 혁명역량 강화이다. 이 적화통일전략은 군사전략과 혁명전략을 배합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북한의 혁명역량 강화,’ ‘남한 혁명역량 강화,’ 그리고 ‘국제적 혁명역량 강화’를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다.⁷⁵ 북한의 혁명역량 강화가 4대 군사노선이라면, 남한의 혁명역량 강화는 남한 내 북한의 동조세력을 많이 만들어 혁명여건 조성을 강화하는 것이다.⁷⁶ 그리고 북한은 남한에서 지하당 구축, 통일전선 형성, 유격전, 대중 투쟁전술, 국군와해전술, 침투전술, 협상전술, ‘시멘트전술’과 ‘갓끈전술,’ 용어혼란전술, 프락치 전술 등을 전개하여 혁명을 달성하고자 하였다.⁷⁷ 이와 같이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무장공비 침투, 간첩 및 지하당 사건, 테러 사건, 땅굴 등의 비정규전을 수행하였고 이는 북한 도발의 역사와도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한국의 반공태세 및 총력안보체제 강화에 따라 군사적 공세보다는 정치 평화적, 사상적, 조직적, 외부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⁷⁸ 특히 정치사회적 공세인 조직공작과 선전공작을 전개하고 있음이 주목된다.⁷⁹ 결국, 북한의 전략적 목적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이를 수행한 전술은 시대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됨을 살펴볼 수 있다.

6·25전쟁 초기전투에서 특수작전 부대에 의한 비정규전의 유효성이 입증되었으므로,⁸⁰ 북한은 비정규전 수행을 위한 주 병력으로 특수작전 부대를 양성하게 된다.⁸¹ 북한은 1960년대 말에 베트남전에서 호치민(胡志明)이 취한 전략인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을 채택하였다.⁸² 이후 북한은 1969년부터 정보병 부대

⁷⁴ 이춘근,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pp. 11, 401;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건사』 등 국방부 공식 문헌.

⁷⁵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회의의 결론,” (1964.2), 나중삼, 『대비정규전사』, 제2권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p. 6에서 재인용.

⁷⁶ 주력군(노동자, 농민의 결속)의 편성 및 배치, 통일전선 형성, 반혁명역량의 약화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해 혁명역량을 강화하였다. 나중삼, 『대비정규전사』, 제2권, pp. 7~10.

⁷⁷ 위의 책, pp. 20~22;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1993』 (서울: 북한연구소, 1993), pp. 942~944; 이우창 외, 『대비정규전사』, 제3권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4), pp. 42~43.

⁷⁸ 이우창 외, 『대비정규전사』, 제3권, pp. 28~31.

⁷⁹ 이윤규, “북한의 제4세대전쟁 전개양상과 대비방향,” 국방대학교, 『한반도 “제4세대전쟁” 패러다임과 한국의 대응전략』 (국방대학교, 2012.6), pp. 129~130.

⁸⁰ 葛原和三, “북괴군은 한국전쟁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p. 96.

⁸¹ 특수전(special warfare)은 비정규전 수행의 일종으로 전쟁의 모든 상황에서 자국의 국가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훈련된 요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비정규전과 대비정규전등을 망라한 정치, 군사 활동이다. 이성만, “현대 비정규전 개념 범주에 관한 고찰,” 『국방연구』, 제53권 제3호 (2010.12), pp. 52~53.

⁸² 1969년 1월 6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인민군 제4기 4차 전원회의에서 행한 김일성 연설에 의하면, “정보병부대가 정규병과 배합작전을 잘해야 하고 정규군을 강화하면서 산악전을 배합하여

를 증편하고 특수8군단을 창설하였다. 유격전은 정치훈련을 잘 받은 지도요원이 주민들을 조직하여 전개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남한의 주민의식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양성한 특수작전 부대를 남파하여 사회불안과 혼란을 야기 시켜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하고자 하였다.⁸³ 또한 이 특수작전 부대는 재래식 전력에 열세에 있는 북한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군사력으로 국군의 5대 위협중의 하나이다. 이 부대는 북한의 정예부대로 정치적으로 신뢰할 만한 병사들 가운데 선발되며, 유격대, 경비병, 공정, 저격 및 전략적 암살, SEAL, 정찰, 수륙강습, 해병대, 잠입 및 첩보활동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만 명이나 되는 북한의 특수작전 부대는 한국의 후방지역에 깊숙이 침투시켜 동시다발적인 군사 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는 부대이다.⁸⁴ 북한 특작부대의 침투공격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특작부대 100여 명이 후방 도시에 대한 강습·침투를 한다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⁸⁵ 특히 북한 특수부대 요원은 장기간 고강도훈련을 통해 평시에는 군사정찰이나 첩보수집, 지하당 구축 등을 위한 공작요원과 정찰국의 특수요원이 침투하고, 전시에는 정규전부대 작전에 기여할 여건 조성을 위한 대규모 특수전 요원이 침투할 것이다.⁸⁶ 또한 이 침투전술은 비정규전 행위의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산물로 가장 중요한 전술이다.⁸⁷ 이와 같이 특수작전 부대의 직·간접적인 운용을 통한 비정규전은 전국적인 혼란과 심리적 공황을 유발하여 국군의 작전을 곤란하게 할 것이다.

요컨대 북한의 비정규전의 전략적 목적인 대남적화전전략은 변화하지 않았다. 북한의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정규전 교리의 4대 군사노선이라면, 남한의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비정규전 교리의 현재적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쟁 이전 평화공세와 함께 특수작전 부대를 양성하였던 것 또한 유사하다. 하지만 전술적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 전술적 방법은

야 한다……전쟁 때 문경고개에서 경비병연대가 단 3개만 있었으면 적을 부산까지 내쫓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며 비정규전을 강조하였다.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3), pp. 1468~1470.

⁸³ 나중삼, 『대비정규전사』, 제2권, p. 22.

⁸⁴ 특수전 병력의 규모에 대해서는 한국 국방백서 2010년 판에 의거하면 20만 명이고, IISS의 *Military Balance* 2011년 판에 의하면 88,000명이다. 이춘근,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p. 180.

⁸⁵ 위의 책, p. 181; 홍은표, “북괴의 대남전략에 있어서 계비라적 요소와 그 가능성,” 참조.

⁸⁶ 양희정·이지윤, “북한군 침투전술 교리연구,” 『군사평론』, 제358호 부록 (2002), pp. 71, 80.

⁸⁷ 이우창 외, 『대비정규전사』, 제3권, p. 43.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군사적 공세보다는 정치 평화적 공세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비정규전 대응 전략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전쟁 초기 형성한 북한의 비정규전 교리가 전쟁 이후에도 전략적 목적은 유지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전술적 방법은 시대별 흐름과 특징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다. 전쟁 초기 북한군 비정규전 수행의 한계는 유엔군의 효과적인 대응에 기인한다. 하지만 사전 준비의 미흡으로 오산 전투 이후 낙동강 전선 형성기에 이르렀을 때 그 효과가 발휘되었다. 북한의 군사전략이 선제기습에 의한 속전속결 전략임을 고려할 때 북한의 비정규전 위협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전이 과거에는 약자가 강자에 대항하는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국제정치의 수단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기 때문에⁸⁸ 북한 역시 북한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 사용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전을 통해 대남적화전략이라는 혁명의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비정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심(民心)을 얻을 수 있는 민사작전과 군사작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 일찍이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 순자는 “전쟁의 기본은 먼저 민심을 통일하는데 있다. 민심이 통일되지 않으면 아무리 군비가 갖추어져 있고 또 전략에 빠짐이 없어도 그 전쟁에 이길 수가 없다.”고 언급하며⁸⁹ 민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마오쩌둥의 유격전에서도 민중과 유격전 부대의 관계를 물과 고기로 비유하며 민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김일성 역시 조선인민군 창설 연설문에서 민군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1949년 이승만 정부는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소규모 비정규전 부대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그럼에도 6·25 전쟁 초기 남로당 세력에 의한 인민봉기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이승만 정부의 안정성에 기인한다. 그리고 북한군이 낙동강선 일대까지 진격할 수 있었던 ‘일점양면 전술’의 전술적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주민과 피난민 속에서 활동한 비정규전 부대의 활약에 기인한다. 또한 전쟁기간 성공적인 대비정규전 작전이었던 지리산

⁸⁸ 홍은표, “북괴의 대남전략에 있어서 계비라적 요소와 그 가능성,” 『국방연구』, 제18권 제1호, p. 175.

⁸⁹ 문성수 외, 『6·25전쟁과 민군작전』, 육군참모총장 추천사.

공비토벌 작전의 성공요인도 민심을 얻기 위한 민사작전에 기인한다.⁹⁰ 비록 북한이 다양한 비정규전 전술을 구사할지라도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정부, 군대라면 북한의 비정규전 부대에 대한 위협의 정도는 낮아질 것이다.

둘째, 비정규전 교리 개념 형성 및 수행부대에 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비정규전 교리는 게릴라전(빨치산, 유격전)뿐만 아니라 특수작전, 그리고 안정화 작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⁹¹ 현대 전쟁은 전·평시 구분이 불분명하고, 군은 다변화되는 위협의 성격에 따라 특화된 군사력을 건설하는 노력이 요구된다.⁹² 따라서 전·평시 구분 없이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북한의 비정규전 부대 위협을 상정할 수 있는 비정규전 교리와 이를 위한 전담부대가 필요하다. 경비경찰은 통합방위를 위한 경찰작전과 치안유지를 위한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⁹³ 실제로 6·25전쟁 초기 사단별 경찰 지원은 피난민 철수에 대한 규제적 접근으로 민과 군을 분리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이후 전후 점령정책이라는 안정화 작전 수행을 위한 준비는 결여되어 그 효과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비정규전 개념을 정립하고, 비정규전 수행을 위한 군·관·경의 합동작전 교리를 발전시키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훈련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특수전 부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전력으로 특전사 부대의 규모를 확장시키고, 다양한 비정규전 임무(안정화 작전, 대전복전, 특수작전 등)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⁹⁴

셋째, 비정규전에 대응할 수 있는 법 및 제도적 정비와 함께 올바른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남한은 남남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북한 군사력의 강점 중의 하나는 사상 강국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비정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선전’이다.⁹⁵ 북한은 과거 군사적 공세보다는 조직공작과 선전공작을 통한 정치 평화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황장엽은 “남한 내에 5만 명의 고정간첩이 암약하고 있으며, 권력핵심부에도

⁹⁰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9권 휴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 (군사편찬연구소, 2012), pp. 585~595; 온창일, 『한민족전쟁사』 (서울: 일조각, 2008), pp. 970~975. 특히 백선엽의 회고록인 백선엽, 『길고 긴 여름날, 1950년 6월 25일』 (서울: 지구촌, 1999), pp. 231~3 참조.

⁹¹ 이성만, “현대 비정규전 개념 범주에 관한 고찰,” pp. 47~70.

⁹² 김종하·김재엽, “복합적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의 방향,” p. 48.

⁹³ 전용선, “경비경찰 역사 및 활동에 대한 소고,” 『경찰연구논집』, 제7호 (2010), pp. 24~42.

⁹⁴ ‘도둑을 잡으려면 도둑이 되라’는 옛 속담처럼 비정규전 부대는 비정규전 부대에 의해 대응할 수 있다. 버어질 네이, “게릴라전의 일반원칙,”; 조영은 편역, 『유격전의 원칙과 실제』 (사계절, 1986), pp. 95~98.

⁹⁵ 위의 글, pp. 18~20.

침투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⁹⁶ 2011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는 총 80개 단체이며,⁹⁷ 이들은 ‘남한내 혁명역량 강화’를 위한 비정규전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 평화적 공세의 결과 일부 국민들에게 친북의식과 반 대한민국 의식이 형성되었고, 안보의식이 해이해졌으며,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심리전에 맞서기 위해 군에서부터 민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 안보관을 통해 올바른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 및 제도적 장치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본 논문은 전쟁 초기 북한군 비정규전 수행의 실상과 그 함의를 통해 비정규전 대응전략을 고찰하였다. 개전 초기 북한의 비정규전은 전쟁 이후 박헌영 처형의 명분을 조성하였고, 북한군 전쟁수행의 역사와 특징 그리고 현대전쟁의 양상을 고려해본다면 비정규전에 대한 고찰은 그 의미를 지닌다. 일부의 주장처럼 김일성이 박헌영은 ‘민중봉기론’에 속아 전쟁을 개시하거나, 혹은 김일성과 박헌영의 갈등이 전쟁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전쟁 초기 비정규전 수행은 동일한 전략 목표인 통일전략이라는 ‘조국전선’의 일환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조국전선이 개편되는 시기인 1949년 6월 이후부터 비정규전 부대에 대한 편성과 교리가 조직화되는 과정을 통해 제도적인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동시에 조국전선의 지령이 전쟁 이전 비정규전 부대의 전술목표가 됨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조국전선을 통한 통일전략이라는 목적은 동일하였지만, 비정규전 부대를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접근 방법은 달랐다.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진행되는 박헌영의 전후 점령정책과 군사적 맥락 속에서 진행되는 김일성의 군사적 배합전으로 서로 다른 작전적 목표를 위해 비정규전을 수행하였다. 실제로 전쟁초기 7월까지 비정규전 부대의 활발한 활동은 전후 점령정책과 군사적 배합전이 각각 일정부분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8월 이후에는 이와

⁹⁶ 유명덕, “중북세력의 제4세대전쟁 전략,” 국방대학교, 『한반도 “4세대전쟁” 패러다임과 한국의 대응전략』 (2012.6), p. 169.

⁹⁷ 위의 글, pp. 167~168.

같은 비정규전의 최초 임무를 고수할 수 없었다. 비정규전 부대의 용이한 통제를 위해 정규전 부대로 편성되었고, 그 이유는 비정규전 작전이 제한되었기 때문이었다. 작전의 제한은 유엔군의 민간요소에 대한 통제와 법령이 발효를 나타내면서 민간인과 비정규전 부대가 분리되었고, 비정규전 부대에 의한 교란, 첩보 및 테러 활동에서 벗어나 경찰국에 의해 치안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북한은 대규모 무장봉기도 정규전부대와 연계된 비정규전 부대의 활동도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전쟁 초기 형성된 북한의 비정규전 교리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우선 북한의 비정규전 교리의 복합적 성격은 지속 유지될 것이다. 즉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비정규전 교리는 사실상 소련식 빨치산 교리와 중국 마오쩌둥의 유격전 교리가 포함된 혼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또한 전쟁 이전부터 초기까지 수행한 비정규전 교리의 목적 또한 변하지 않고 있다. 전략목적은 동일하게 ‘평화통일’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작전적인 측면에서는 전후 점령정책보다 작전적 배합전 교리, 즉 정규작전을 위한 비정규전 부대의 운용에 좀 더 치중하여 각종 특수작전 부대를 운용, 양성해왔다는 점에서 전쟁 초기와 상이하다. 또한 이와 같은 전략 및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 초기 군사적 임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전술 목표가 할당되었다면, 지금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군사적 방법보다는 정치 평화적 방법에 의한 전술을 더욱 더 구사하고 있다. 결국,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기 위한 전통적인 도발과 함께 조직 선전을 통한 다양한 정치 사회적 공세가 지속될 것이다. 향후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는 먼저, 민심(民心)을 얻을 수 있는 민사작전과 군사작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정규전 교리 발전과 이를 수행할 전담부대를 육성하며, 기존의 법 및 제도적 장치와 함께 국가정체성 함양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이고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는 북한의 비정규전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전에 대한 총체적 인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접수: 10월 15일 ■ 심사: 11월 24일 ■ 채택: 12월 6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남식. 『남로당연구』. 서울: 돌베개, 1984.
- 나종삼. 『대비정규전사』. 제2권(1961~1980). 국방군사연구소, 1998.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북한군 전투명령』.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 _____. 『6·25전쟁사』. 제9권 휴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 2012.
- _____. 『국방사건사』. 제1집, 2012.
- 루퍼트 스미스, 황보영조 역. 『전쟁의 패러다임』. 서울: 까치, 2008.
- 문성수 외. 『기록으로 본 6·25전쟁과 민군작전』. 대전: 육군본부 육군군사연구소, 2012.
- 박명립.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서울: 나남, 2002.
- _____.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1권. 서울: 나남, 1996.
- _____.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2권. 서울: 나남, 1996.
- 배뮤데즈 저, 김광수 역. 『북한군-구조와 변동』. 서울: 황금알, 2007.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 1993.
- 백선엽. 『길고 긴 여름날, 1950년 6월 25일』. 서울: 지구촌, 1999.
- 스칼라피노·이정식, 한홍구 역. 『한국 공산주의운동사』. 서울: 돌베개, 1986.
- 양영조.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 1945-1950』.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7.
- _____. 『한국전쟁과 동북아 국가정책』. 서울: 선인, 2007.
- 애플만, 육군본부 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육군본부, 2001.
- 이민룡. 『김정일 체제의 북한 군대 해부』. 서울: 황금알, 2004.
- 이우창 외. 『대비정규전사』. 제3권 (1981~200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 이진호. 『미래전쟁: 첨단무기와 미래의 전장환경』. 서울: 북코리아, 2011.
- 이춘근.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위협 현황과 대응방안』.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12.
- 일본 육전사연급보급회 편, 이원복 역. 『한국전쟁』. 제2권 부산 교두보 확보. 서울: 명성출판, 1991.
- 온창일. 『한민족전쟁사』. 서울: 일조각, 2008.
- 유중근 역. 『대반란작전(Counterinsurgency Operations)』. 서울: 합동참모대학 합동교리발전부, 2010.
- 육군본부. 『공비토벌사』. 육군본부, 1954.
-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 『한국전쟁사』 수정판. 서울: 일신사, 1996.
- 육본정보참모부. 『공비연혁』. 육군본부, 1971.
- 장명순. 『북한군사연구』. 서울: 팔복원, 1999.
- 정석균. 『대비정규전사(1945~196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 정창현. 『인물로 본 북한현대사』. 서울: 민영, 2002.
- 정관호. 『전남 유격투쟁사』. 서울: 선인, 2008.
- 존 메릴, 이종찬 역. 『한국전쟁의 기원과 진실』. 서울: 두산 동아, 2004.
-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서울: 을지문화사, 1972

-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빨치산 자료집』, 제6권 신문편(1), 1996.
- Hammes, Thomas, 하광희·배달형·김성걸 역, 『21세기 전쟁-비대칭의 4세대 전쟁』,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 강근조, 『조국해방전쟁과 인민유격투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0.
- 강석희,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 『김일성선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
- 『김일성저작집』, 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조선전사』, 제25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전3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2. 논문

- 권태영, “천안함 이후 우리의 역-비대칭 전략 및 정책 방향.” 『국방정책연구』, 제26권 제3호, 2010.
- 김남식, “1948~50년대 남한내 빨치산 활동의 양상과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 제4권, 서울: 한길사, 1989.
-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 김광운, “북한의 비정규전 조직과 전개.”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분과 편,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 서울: 휴머니스트, 2010.
- _____, “한국전쟁기 북한의 게릴라전 조직과 활동.” 『군사』, 제48호, 2003.
- 김경은, “혁명전과 게릴라전에 대한 소고.” 『군사논단』, 제32호, 2002.
- 김영택, “한국전쟁기 남한 내 적색 빨치산의 재건과 소멸(1950.10.5-1954.4.5)-전남 총사령부와 6개 지구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7집, 2003.
- 김종하·김재엽, “복합적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의 방향.” 『국방연구』, 제53권 2호, 2010.
- 박영자, “6·25전쟁기 북한의 ‘후방정책’-후방 전시동원에 대한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군사』, 제57호, 2005.
- 박용환, “북한의 선군시대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선군군사전략’의 형성.” 『국방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2012.
- 방선주, “한국전쟁 당시 북한 자료로 본 ‘노근리’ 사건.” 『정신문화연구』, 제23권 제2호, 2000.
- 버어질 네이, “게릴라전의 일반원칙.” 조영은 편역, 『유격전의 원칙과 실제』, 사계절, 1986.
- 양영조, “6·25전쟁 남침전후 북한 게릴라의 성격.”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전쟁기 전쟁수행과 그 영향』, 2010.
- _____, “6·25전쟁기 제8군 정보참모부(G-2) 정보보고서 자료 해제.” 『한국학논총』, 제34호, 2010.
- _____, “한국전쟁기 북한 게릴라의 운용과 성격.” 『북악사론』, 제10집, 2003.

- _____. “한국전쟁기 대구지역 피난민의 실태와 구호활동.”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분과 편.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 서울: 휴머니스트, 2010.
- 양희정·이지윤. “북한군 침투전술 교리연구.” 『군사평론』. 제358호 부록, 2002.
- 이미숙.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병행 행태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남전략.”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 이선아. “한국전쟁 전후 빨찌산의 형성과 활동.” 『역사연구』. 제13호, 2003.
- 이성만. “현대 비정규전 개념 범주에 관한 고찰.” 『국방연구』. 제53권 제3호, 2010.
- 이윤규. “북한의 제4세대전쟁 전개양상과 대비방향.” 국방대학교. 『한반도 “제4세대전쟁” 패러다임과 한국의 대응전략』. 2012.
- 이인영. “북한군 특수전부대의 위협/대비방향.” 『군사평론』. 제351호, 2001.
- 임 은. “6·25 동란의 방화자는 김일성이다.” 김철범 편. 『진실과 증언』.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전용선. “경비경찰 역사 및 활동에 대한 소고.” 『경찰연구논집』. 제7호, 2010.
- 최용성. “한국전쟁시 낙동강 방어 형성의 배경.” 『신라문화』. 제24호, 2004.
- 홍은표. “북괴의 대남전략에 있어서 계바라적 요소와 그 가능성.” 『국방연구』. 제18권 제1호, 1975.
- 葛原和三, 육군대학 역. “북괴군은 한국전쟁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군사평론』. 제339호, 1998.
- Lind, William. “Understanding Fourth Generation War.” Military Review, 2004.

3. 기타자료

- 『노동신문』.
- 『인민』.
- 『조선인민보』.
- 『조선중앙년감』. 1951~19152.
- 『해방일보』.

<부록 1> 전쟁초기(1950년 6월~9월) 북한군 비정규전 활동

순번	시기	내 용	출 처
1	6.25	-경주, 청송, 영덕방면 인민유격대, 감포 상륙한 북한군 부대와 합류하여 경주군 일대 기습 이후, 포항에 상륙한 군부대와 영일, 청송, 영덕, 경주일대 촌락 해방	조선중앙연감(411)
2	6.28	-지리산 유격대, 진주-함양의 통신로 차단 및 고립 성공	조선인민보(7.2)
3	6.28/29	-삼척방면 인민유격대, 북한군 부대와 합류하여 700여명 살상, 포병대대장 3명, 연대참모장 2명, 사단작전참모 1명, 사단정보주임 1명 포함한 600명 포로, 105밀리 및 60밀리 박격포 등 노획	연감(411)
4	6.30	-인천에서 게릴라 300여명 폭동	FEC, G-2 IR NO.25
5	?	-포항을 제압한 인민유격대가 대구방면 맹진공 -보성, 함양, 산청, 부산, 마산 등 주요 지역에서 인민유격운동과 인민봉기 활동 일어남 -대구, 광주 대폭동 발생	해방일보(7.4) *에이피통신 인용
6	7.2	-지리산 인민유격대, 순천군의 두 지서 습격/소탕 및 군중대회 소집 -지리산 인민유격대 별도대가 구리면 지서 습격, 경찰과 악동분자 소탕	조선인민보(7.4) 해방일보(7.5)
7	?	-밀양, 량산, 동래, 순천, 임실, 전주 등 인민들의 열광적지지 밑에 패주병과 악질분자(경찰서, 민보단원) 소탕	해방일보(7.7)
8	?	-전주시청 기습, 경남북 주요도로 장악 -상주, 봉화, 거창, 울산 등 인민유격대가 화북면 등지에서 매곡노 소탕, 인민위원회복구사업 착수, 주요도로 장악	조선인민보(7.7) 해방일보(7.8)
9		-전남 학도 쫓기, 인민유격대 협력	조선인민보(7.8)
10	?	-남반부 인민유격대, 미군 무기 수송로 차단, 부산 등 각지 도로 및 교량 파괴, 추풍령 방면 중요도로 교량 파괴(소백산 유격대), 량산, 기장 교량 파괴(동해안), 왜관, 경산 상설도로 폭파(대구방면 유격대), 순천, 광양 도로 교량 파괴(지리산 유격대)로 미국무기 수송 혼란	해방일보(7.9)
11	?	-지리산 유격대가 장성, 곡성, 영암, 금정, 순천 등 경찰지서 급습, 군중집회, 뼈라 살포 등	해방일보(7.10) 조선인민보(7.11)
12	7.4	-지리산 유격대 삼장면 일대 군중집회, 함양 인민유격대 경찰수명 살상	해방일보(7.11)
13	7.7	-밀양, 량산 인민유격대 숙청 및 군중대회	해방일보(7.11)
14	7.7	-영산에서 소제 소총과 탄약 178발과 무장한 1명 게릴라 체포 -목포에서 게릴라 파출소 기습	FEC, G-2 IR NO.25
15	7.8	-지리산 유격대, 순창에서 악질분자 처단, 화순 습격, 순천 경찰서 기습	해방일보(7.12)

16	7.8	-화순지구 경찰 처단, 부락민에게 정치해설 공작 재개 -곡성 약질분자 순청	해방일보(7.14) 조선인민보(7.14)
17	7.10	-순창, 무주 지서 및 전투경찰 습격	
18	?	-경북 인민유격대 적 퇴로 교란, 태백산 유격대 상주/김천 퇴로 교란, 보현산 인민유격대 군중대회, 경주-영천-대구간 전화선 차단(2일)	해방일보(7.14)
19	7.8	-함양 약질분자 처단	
20	7.9	-밀양, 거창 경찰 사살	
21	7.8	-부산, 서남부지역 전남, 경남(30명), 함양(30명)의 계릴라가 마을을 공격함	FEC, G-2 IR NO.25
22	7.9	-고창에서 경찰이 계릴라 30명과 교전 -함안, 산청, 밀양, 하동, 창녕에서 계릴라 활동	FEC, G-2 IR NO.25
23	?	-거창, 잠복근무중인 경찰대 교전하여 완전소탕 -덕유산방면 인민유격대 설천면 지서 기습	해방일보(7.15)
24	7.11	-대전에서 17명이 계릴라 혐의로 체포됨	FEC, G-2 IR NO.25
25	7.12	-함양 유격대, 서상면 대남리 일대 기습 경찰부대 사살	
26	7.13	-령광방면 서해안 인민유격대, 염산면 봉남리 일대 해방 이후 군용도로와 교량을 파괴하고 잠복중이던 령광경찰서 경찰기동부대 100여명 포위섬멸함 -경남 산청지구 지리산 유격대, 신기부락 약질분자,경찰 포위섬멸	해방일보(7.17) 조선인민보(7.17) 연감(411)
27	?	-화순방면 약질분자 소탕, 정치 해설사업 진행	
28	7.13	-영천에서 1천여 명의 계릴라가 시내 남동 5마일에 위치	FEC, G-2 IR NO.25
29	중순	-동해 소규모 계릴라 출현, 경찰과 교전 -부산지역 계릴라 조직 편성, 선전 강화됨 -지리산 계릴라 조직 혼란중임	
30	7.14	-장성유격대, 구봉리 지서 습격 및 상사면 매복중 경찰 공격 -화순 지구 유격대, 경찰지서 습격	해방일보(7.18) 조선인민보(7.18)
31	7.15	-함평지구 유격대, 령광군 경찰대 공격	
32	?	-경남방면 함양 약질분자 및 경찰, 김해 경찰지서 습격	
33	7.14	-군위군 소보면 경찰지서 습격	
34	7.15	-정산군 정산면 대평동 기습, 약질분자 처단, 대전 방면으로 패주하여 잠복중인 경찰 수명 처단	해방일보(7.20) 조선인민보(7.20)
35	7.16	-선산군 두성면 일대 교량파괴	
36	7.17	-장흥, 담양, 화순, 광주, 광양군 전남일대 반동주구와 경찰 소탕, 감금된 수감자 구출, 주요 도로 파괴 및 경찰지서 습격	해방일보(7.23) 조선인민보(7.20) 연감(411)

37	?	-광양군 진공한 지리산 유격대는 반동주구 차단, 죽천리 해방 -성해안 유격대, 담양군 월산면 용구봉에 진출하여 봉화시위를 전개한 후 경찰에 대한 매복기습으로 50명 차단	연감(411)
38	7.17~19	-백운산 인민유격대, 거창군 함양군에 진출하여 지리산 인민유격대와 협동작전을 전개하여 경찰 400여명 살상, 군수기재 노획 -청년 200여명 인민유격대 협력 후 각각 백운산과 지리산에 입산함.	연감(412)
39	?	-지리산 인민유격대, 경찰 소탕 -남한에서 전남경찰국장을 지리산 지구 경찰대장으로 임명하여 지리산 일대 100명씩 배치 예정	해방일보(7.24) 조선인민보(7.25)
40	7.15~18	-15일, 창방(7명)에서 마을 가옥 방화 -16일, 월례산(40여명), 보령(45명), 상정(약20명), 복산(무장15명, 비무장15명), 오부(7명 무장 등 13명) 활동 -17일, 대천(2명), 양주(40~80명), 원동(11명) 활동 -18일, 영양(1850여명), 양산(무장5, 비무장10),산천(6명), 산번(8명), 남내(12명), 삼탄, 삼장(20여명) 마을 약탈, 경찰 교전 등 활동	FEC, G-2 IR NO.25
41	7.22	-경남북 인민유격대, 산정군 단성면 전시전화선 절단 -패전한 적 후방을 교란, 잠복근무중 경찰 소탕	해방일보(7.27) 조선인민보(7.27)
42	7.23	-경북방면 인민유격대, 대구방면으로 행동범위 확대 -동해안과 대구 주변 도로 파괴, 상주방면 인민유격대 영동 해방 등 대구 주변을 포위하면서 후방으로부터 위협을 가하고 있음 -경북방면 인민유격대, 패주하는 적의 퇴로(경주, 영천, 영덕) 차단, 대구-동해안 도로 차단 -경남방면 인민유격대, 부산 주변에서 맹활동	해방일보(7.29) 조선인민보(7.28)
43	-	-고양군 송인면 인민위원회 선거시 당선된 김희씨(25)는 빨치산 출신임	해방일보(7.29)
44	?	-대전전선 도강작전에서 “우리 빨찌산은 금강뒤편을 폭파”시켜 적의 퇴로 차단	조선인민보(7.30)
45	-	-뉴욕타임스지 통신원: 인민군대의 땅크부대, 보병부대 목표 접근 전에 유격대 활동 시작 -미국 사절단 단장은 미국 군대 퇴각시 광주-순천 철도 연안에서 유격대가 활동하였음	해방일보(7.31) 조선인민보(7.31)
46	7.25	-제주도 인민유격대, 남제주 방면 중문면 화원경찰지서 습격	해방일보(8.2) 연감(412)
47	7.27	-경북방면 인민유격대, 금천 부근 주둔중인 미군부대 불의 습격, 대타격을 가함, 금천-대구간 교통선을 교란, 적들과 교전으로 타격을 입음 -경남 사천군 삼천포 방면 인민유격대, 하동을 해방 -진주에 돌입한 인민군대에 발맞추어 후방을 교란(경찰 소탕, 주민들 환호속에 악질주구 타진), 진주방면 이동	해방일보(8.2) 조선인민보(8.4) *출처:유파통신 제임스특파원(7.29)

48	7.27	-배철(경북 유격대장), 대구비행장 2일간 점령	연감(411)
49	?	-영동전투에서 인민군대와 경북지구 빨찌산의 긴밀한 협동작이 성공하여 적 대부대 섬멸 -인민군대: 김종협 구분대에 의한 영동-무주 차단(땅크 10대, 자동차 25대) -경북지구 빨찌산: 영동-대구 교량과 도로 파괴하여 적 기계화부대 퇴로를 차단하여 무주방향으로 퇴각 유도	조선인민보(8.12)
50	8.10	-경남북방면 인민유격대, 적군 후방교란에 맹활동 -산청군 하동군 일대와 밀양군 김해군 일대에서 활약중이던 남해안 및 지리산 인민유격대는 8월 초순 인민군대와 호응하여 후방활동 전개 -경주군 일대 군용품수송 파괴 및 경찰지서 습격, 대구 방면 적의 군용시설 파괴 -밀양군 일대 매곡지구 숙청 및 지서 습격, 군사시설 파괴교란(대구-부산 연결 철로 제압, 군용열차 습격) -하동 산청지구 인민유격대, 전라남북도 일대에서 패주하는 괴뢰군경부대를 요격, 기습으로 막대한 타격을 가함 -지리산의 이현상 부대, 달성군 가창면 일대 미군 통신부대 기습 미군 20여명 사살, 무전기 14대, 소총 20정, 통신시설 파괴	해방일보(8.14) 조선인민보(8.12) 연감(411,412)
51	?	-제주도 인민유격대, 경찰부대를 계속 공격소탕함	해방일보(8.22)
52	8.5	-동해전구 빨찌산, 안동에서 퇴각을 개시한 미군부대들을 안동 남방 00km 지점에서 대기, 사면에서 공격하여 50명의 시체와 카빈총, M1소총, 60미리 박격 노획	
53	7.25	-홍철수 대대장 지휘부대는 봉화군 재산면 일대 불의 습격하여 국군 1개 대대 완전 포위섬멸, 재산면 경찰지서 기습 200명 처단, 재산면 인민들은 국군 군용미곡창고 파괴하여 1,100가마니 양곡 접수하여 분배 *연감에서는 1,300가마니, 김남식은 홍철수를 강정수로 표현 -유격대원 김도식은 국군 특공대 대장 리순봉을 비롯한 강원도 춘천경찰서 특공대 소대장 허진 등 수색 체포	해방일보(9.3) 조선인민보(9.6) 연감(411)
54	?	-동해전구 유격대, 적군 퇴각로, 교량 철도 파괴 -안동 이후 00방면 국군 45명과 조우, 유리한 지형 선택하여 완전 섬멸함	
55	?	-전남선거(8.13~25)완료, 선출된 위원 다수가 과거 빨찌산 투쟁과 지하조직에 참가했던 투사였음	조선인민보(9.5)
56	?	-남강원도 립시인민위원회 선거완료, 위원에 빨찌산 용사 다수 당선(빨찌산 8명, 지하당구축 21명, 감옥인원 20명)	해방일보(9.10)
57	?	-대구 유격대, 영천/경산 일대 부대 기습, 후방도로, 철도, 전신 전화선 등 절단, 무기노획, 중요도시 침투	조선인민보(9.12)

58	8.25	-마산방면 유격대, 창령 후방 공격 -이현상 부대, 경남 창령 미군 사령부(병력500, 탱크40, 화물차150) 습격하여 100여명 사살, 탱크3대, 화물자동차 30여대 파괴	조선인민보(9.12) 연감(411)
59	8.31	-배철 부대, 북한군 1사단과 배합하여 영천군 화개면 미군 포진지 급습하여 47명의 소부대로 1개 중대 병력 소멸	연감(411)
60	9.6	-이현상 부대, 경북 청도지구 진출, 인민군부대와 협동작전 전개, 미군 48명 살상, 탱크 4대, 군용트럭 70대, 대포 1문, 장갑자동차 6대 노획 또는 파괴	연감(411)

Abstract

North Korean Peoples Army' Irregular Warfare Doctrine during the Early Phase of the Korean War

Sung-Jin J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octrine and reality of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irregular warfare during the early phase of the Korean War based on the North Korean documents. For the strategic objective of "unification," North Korea waged irregular warfare with various tactical goals, formulating postwar occupation policies and waging operational hybrid warfare that combined regular and irregular warfare.

North Korea's irregular warfare is not a relic from the Korean War; it is a contemporary issue that is still relevant. North Korea's doctrine of irregular warfare still maintains the same strategic objective as during the Korean War. The effective military and civil military operations of the UN forces caused irregular warfare activities to decrease during the early phase of the Korean War, specifically after August 1950.

Therefore, we need to prepare future counter strategies against North Korea's irregular warfare. To do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ppropriate doctrine of irregular warfare and its operation forces, as well as to develop a doctrine of operations that encompasses military, official spheres in order to win the approval of the general public. In addition, we also need to restructure our national identity, law, and institution based on proper perspectives of history, nation, and national security.

Key Words: North Korean Peoples Army, Irregular Warfare Doctrine, the Korean War, Strategy, Tactics